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미래 지도자를 위한 대학생 복음화 대회” 개최기로

우리 교회와 CCC 공동 주최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병들고 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그 인격 면에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오로지 입시 전쟁만을 바라보며 고교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이 이 나라를 젊어질 미래의 지도자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 사회적 책임을 동감하면서 미래 지도자로써의 자질을 갖추게 하

기 위한 문을 열어 주기로 하고 내년 2월 22일과 23일에 “비전 2000, 대학인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 지도자를 위한 복음화 대회”를 우리 교회당에서 신입생 만 명을 초청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 대회는 대학 신입생들로 하여금 대학 본연의 순수 기능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정립하며, 모든 학문의 궁극적 해답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기독교 학생들도 초청하여, 학원 복음화를 위해 절대 헌신할 역

량 있는 일꾼들이 복음화 사역에 동참하고 연합하여 훈련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 하에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미래 지도자를 위한 복음화 대회”는 이데올로기와 물질 주의, 퇴폐 풍조의 온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대학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 주도하는 영적 분위기를 조성시켜 건전한 대학 문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주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랑하는 S 군,

몇 일 전, 자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입대를 하겠다고 내게 인사를 왔을 때 나는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났음을 실감하였네. 자네의 부친과 함께 내가 학보병으로 입대하여 논산 훈련소에서 삭발을 하고 서로를 바라보기가 민망하여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말일세.

자네 동생은 금년에 대학 입학시험을 치른다지? Y 군의 장래를 위하여 자네 모친의 부탁대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네. 시험일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 무슨 충고가 되겠는가 마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라는 말을 하고 싶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믿음을 갖고 인내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희망도, 상급도 주어지는 것임을 말해 주고 싶네.

최근 대영제국의 최연소 수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메이저나 신흥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폴란드의 대통령이 된 바웬사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 출신이지만 훌륭한 지도자로 부각된 것은 그들이 진실과 희망을 안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 인생의 채널을 맞추어 보세. 그러면 모든 것이 선명히 보일 것이며 확실해질 것일세.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일세.

12. 16

이 중 윤 목사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위해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특별헌금

공산권에 90년도 성탄 선물로 성경과 찬송가를 보내기로 하고 전개하고 있는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이 오는 12월 23일이면 끝난다. 그런데 지난 9일까지 이 운동을 위하여 성도들이 한 특별 헌금은 성경 9천백 91권에 상당하는 것으로, 당초 목표량인 2만 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교회학교 각 부서는 집회 시간에 이 운동을 위한 특별 헌

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부 학생들은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 주일(9일) 집회 시간에 성경 3백여 권을 보낼 수 있는 특별 헌금을 하였다.

또한 실업인선교회는 4백 권의 성경을 보내기로 결의하였고, 영아부 어린이들도 정성을 모아 오늘 집회 시간에는 특별 헌금을 하며, 유치부는 오늘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다음 주일에 헌금을 한다.

인사이동

우리 교회 당회는 12월 14일 임시 당회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할렐루야찬양대 지휘자 임명 박창훈 교수
(서울 음대 졸업, 미국 워싱턴대 음악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취득)

◇교회학교 부감 이동 대학부 문명에 권사
장년1부 김석운 권사

장년3부 유금열 권사
◇장애아동 조기교육센터 지도 배옥인 전도사

대학생 고3 수험생 위한 행사 계획
소망부 위로 잔치도

대학부는 지난 11월 17일에 있었던 가족초청잔치 이후, 또 다시 뜻깊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6일에는 지금이 있기까지 애쓰시고 보살피 주신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적게나마 떡과 과일 등을 준비하여 소망부 회원들과 즐거운 한때를 갖는다.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잔치는 대학부내 소그룹인 NMC, 돌베개, 교사들의 찬양과 기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대 학력고사 소집일인

17일에는 대학부 학생들이 각 대학으로 나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예비소집 1시간 30분 전부터 아래와 같은 각 대학별 집합 장소로 가면 우리 교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나는 18일 오후에는 마음이 헤이해지기 쉬운 수험생들을 위해 오후 6시에 교회 만나홀에서 떡국을 끓여 놓고 시험을 치르느라 애쓴 후배들을 기다린다고 한다.

〈대학별 집합 장소〉

학 교	장 소
건 국 대	학생회관 앞
고 려 대	호상 앞
서 울 대	우체국 앞
성균관대	문과대 앞
성신여대	도서관 앞
송 실 대	정문 앞
연 세 대	100주년 기념관 앞
외국어대	정문 앞
이화여대	박물관 앞
인 하 대	후문 앞
중 앙 대	정경대 앞
한 양 대	사자상 앞
홍 익 대	체육관 앞

교회학교 교재 편찬위원회
13일, 14일에 세미나 가져

한국 교회 교회학교 교재 편찬위원회(위원장 이중윤 목사)가

지난 12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충남 아산군 도고에서 신학교 수 13명, 교육연구위원 6명, 집필위원 11명 등 모두 30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3차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교재 집필을 위해 주제에 따라 부서별로 교육 내용을 분화하는 것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낮 열두 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답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고로...” (요 11: 7-10)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신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청함을 받고 즉시 베다니로 달려가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안이나 지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더 유하신 후에 유대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요 11: 7).

당연히 베다니로 가셨어야 했을 예수님께서 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유대에 다시 가자는 말씀은 몹시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이 말씀은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게 되어 있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라고 물었습니다(요 11: 8).

우리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에 주의해야 합니다.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 정해진 시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단어가 이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때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기 욕심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30절과 8장 20절에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장 23절, 13장 1절, 16장 32절, 17장 1절에도 여전히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 현명한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숨과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를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뜻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경우,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11장 16절을 보면 그 한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체념하고서 한 말이요,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께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위험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위기와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간에 우리들은 주님께 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만큼의 일을

충분한 시간과 함께 맡기신다

그들은 곧 자기들에게 닥칠 손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 한 것입니다.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요 11: 9)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얼마 만큼의 시간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의 시간은 그 누구도 길게 하거나 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원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 열두 시이기 때문에 실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지라도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의 수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자는 마틴 루터와 같은 용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충분한 시간

또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만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일의 우선권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선 분명히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일의 우선권이 뒤바뀌어 선택을 잘못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일에 순서를 따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순서를 찾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과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3. 낭비해서는 안되는 시간

우리들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물질을 낭비하는 것은 아까운 줄 알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 시간이든 남의 시간이든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80이나 90을 살아도 30년은 잠으로 자 버리고 30살까지는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으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시간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런고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을 날을 늘 계산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요 11: 9, 10)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가로등이나 조명등이 있는 시대에는 밤에도 작업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에는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낮은 일할 시간입니다.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빛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워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낮 열두 시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즉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웅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걸음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열두 시까지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적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실패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거침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끝날 때까지 늘 주님의 빛 안에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

하나님의 사랑의 매

안 명 회 성도

(청년 2 부)

모든 사람들이 한 해를 마감해 가는 이때쯤이면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지난 1년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 바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념했던 무엇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7년간 교회를 다녔으나 믿음이 없었기에 성전들만 밟고 오는 일요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라는 의문 속에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 헌신이 바빴습니다. 불링을 좋아해 미친듯이 불링장을 찾았고, 연휴가 되면 지도를 펴놓고 이번엔 어디로 갈까라며 계획을 세우고 전국을 여행하느라 바빴습니다. 주일에 어쩌다 낮잠이라도 자게 되면 그 시간까지도 아깝게 느껴져 영화 한 편이라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에서 자꾸만 멀리 떠나가려는 저에게 먼저 위례양으로 입원하게 되는 사건으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았던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드디어 사랑의 매를 드셨고 그 매를 맞고서야 진실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위례양으로 보름간 입원하여 퇴원한 지 한 달 후, 하나님의 은혜로 암 조직검사를 하고 위암 초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위암 초기이니 수술을 해야겠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고, 진정으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례양으로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 친척 중 혼자 교회에 다니셨던 막내 고모가 저에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시편 50장 15절 말씀을 주며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위암 수술을 받으며 저를 변화시킨 소중한 주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였기에 수술 전날밤 제 마음은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편안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걱정된다."며 걱정하시는 엄마를 위로해 드리고 웃으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6시간의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추가로 약을 먹

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수술 후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어느 주일날, 병원 안의 예배실에서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 때문에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검은 머리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러 온 것을 보며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할 외과 의사가 다녀갔으나 아는 분의 소개로 수술의사를 바꾸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2인 병실로 옮기고 난 후, 전 그 곳에서 또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한 방에 있게 된 분은 저보다 먼저 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잘못되어 며칠 후 재수술을 받고서 입원해 있는 중이었는데 결국 한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수술한 의사가 제가 처음에 수술받기로 정해졌던 그 의사였습니다.

또 퇴원하여 몸이 회복되는 아픈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심이라"(사 38:17),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

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의 귀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의 품을 떠나 방황하던 저를 주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셨고 또한 큰 축복도 주셨습니다. 제가 퇴원한 뒤 믿지 않던 저희 부모님을 인도하여 저희 가족 모두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저는 수술받고 2달만에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부 예배 찬양대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노래를 하다 보니 배에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수술받은 부분이 아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교사양성부를 수료하였고, 지금 사랑부 교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덩으로 받은 이 생명 주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교회 등록은 하였으나 아직 출석하지 않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 가족 모두와 믿지 않는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뛰어들었던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 교회일로 더 바쁘게 뛰고 있으나 몸은 더 건강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올해의 2가지 기도 제목(건강 회복과 믿음 성장)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사랑의 매를 맞을 땐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니 맞으면서 온 길이 복된 은총의 길이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위암 초기에 살려 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 이제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게 됩니다. 받은 이 은혜와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사는 것이 주의 은혜에 한 모퉁이만큼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 노력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 차 · 안 · 내

겨울철 빙판길에 대비하여 교체한 스노우 타이어가 스파이크식인 차량을 주차하실 성도는 지하 주차장의 노면 보호를 위하여 벵바게광장이나 본당 뒷편 광장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리 국

세기동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납



이 정 우 집사

요즈음 용납이라는 말이 나에게 현실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인가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는 용납'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놓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권하여야 할 것이 오래 참음이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였음을 기억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교육과 여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자라온 과정과 형성된 성격, 인격,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 구성된 모임이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 모여 있

는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련을 맺는 방법, 그리고 교회의 역할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을 입으로 말하지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만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과정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부단함과 갈등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지체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데 용납이라는 단어는 모든 자재를 이어서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는 데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용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웬일인지 나는 자주 어린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어른이 된 나의 사고의 틀로써 꾸지람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그를 정죄하려 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쌓이곤 한다.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재빨리 나와 다른 점을 파악해 버리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나와 동등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간혹 나의 기대치나 성숙의 정도가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할 때도 있다.

요근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다른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반성이 계속된다. 그 자책과 반성의 초점은 용납에 관한 부분이며 이것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가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누군가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고 하였다. 병자들의 집합소이며 자신의 병을 깨닫는 자들이 환부의 악취와 상처의 흉터들을 들어내 놓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다. 그는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불치의 병인지도 모르고 건강한 양, 별것 아닌 양,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상대방의 병을 인정하며 지내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병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병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서로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병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환자들간의 용납이라면, 교회에서 성도들간의 용납이 교회가 아름답게 존속하는데 윤택유가 되고, 시멘트가 될 것이다.

다음호 세기동은 김상규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에스더전도회 방갈장로교회 지원

에스더전도회 연합회(회장 정경자 권사) 회장단은 지난 12월 1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소재한 방갈장로교회(최본우 목사 시무)를 방문하였다.

이들이 방갈장로교회를 찾게 된 이유는 이종윤 위임목사 앞으로 온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그 편지는 방갈장로교회에 다니는 최정하라는 중학 1년생이 보낸 것인데, 거기에는 방갈장로교회의 딱한 사정이 담겨 있었다.

방갈장로교회는 파도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바다 바람의 영향이 대단하다고 한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자 토요일 밤마다 있는 철야 예배를 드리기조차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

러나 교회 재정이 몹시 어려워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안타까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조직한 어린이 성가대는 그때까지 까운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딱한 사정을 위임목사로 부터 전해 들은 에스더전도회 회장단은 난로와 성가대 까운을 준비하여 방갈장로교회를 찾아갔다.

그 교회를 찾은 회장단은 어촌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본우 목사 내외의 사명감 넘치는 희생적 삶을 통하여 무척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계속 후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미래 지도자를 위한 대학생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며

이 훈 장로(대학부 부장)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로 “미래 지도자를 위한 복음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현교회 이종윤 위임목사와 한국대학생선교회 총제이신 김준곤 목사의 자량과 믿음의 협조로 충현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공동으로 이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본 대회는 91학년도 대학 신입생들에게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본연의 순수한 기능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이해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 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태올로기와 물질만능주의, 퇴폐 사상, 이단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학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영적 분위기를 조성시켜 대학 문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이 민족과 세계가 필요로 하는 참다운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시키는 대회입니다.

현재 한국 대학들은 교수나 교직원들만으로는 학생들을 선도하기가 어렵고 벼랑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반향과 탈선하기 쉬운 사회적 현실에 어떤 면에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계적인 주입식 교육에 따른 비논리적인 사고의 소유와 오직 진학 위주의 출세지향적인 교육과 학력 위주의 사회 제도가 낳은 결과입니다. 오직 “나”만이 제일이고 나만 잘되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엄청난 착각이 우리들로부터 우리 후대에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공동체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일깨워 주고 신앙적 비전과 체험을 통하여 이 민족에 소망을 주는 진정한 기독교 학생들이 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학원 복음화를 위한 이번 집회가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 직장전도교육부에 많은 도전과 변화와 부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한국대학생선교회 간사님들과 회원들의 헌신하는 모습과 열정을 배우고 학원 복음화를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의 여러 문제들은 방관이나 비판의 자세로는 해결할 수가 없음을 명심하고, 학원 복음화와 미래 지도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교구 7일에 송년회

제1교구는 지난 12월 7일 오후 6시에 갈릴리움에서 교구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이 시간에는 이종윤 위임 목사가 “민중 신학”의 정체를 밝히는 특강이 있었고, 각 전도회 대항장기 자랑, 크로마하프 연주, 성경 암송 대회를 열어 교구 식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생을 나누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교구 수련회, 1교구 전도회의 지원 교회 교역자 초청 잔치



등 각종 행사들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는 순서도 거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한 한 해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계속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짐하였다.

실업인선교회 총회 91년도 임원 선출

금년 4월 12일에 창립한 실업인선교회(회장 임광식 장로)는 지난 12월 10일 만도 유스호스텔에서 이종윤 목사와 4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감사의 밤을 열었다.

이 모임에서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요셉의 생애”라는 제목의 특강이 있는 후, 임원을 새로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부간의

장기 자랑, 선물 교환,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친교를 나누었다.

91년도 선임 임원으로 고문에 임광식 장로, 회장에 남선우 장로, 부회장에 이영렬 집사, 최상조 집사, 조흥진 집사, 서기에 이부성 집사, 회계에 임영근 집사가 선출되었다.

인재를 찾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 각 부서의 찬양대에서 자원 봉사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휘나 반주에 은사가 있으신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연락처-사무국 행정과: 소석관 102호).

현대박방

제 50 과 동방박사의 예물

성경: 마 2:1~23

요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마 2:10)

찬송: 112, 116

서론

본문에서 우리들은 몇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 동방의 박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본론

첫째, 헤롯 왕은 많은 살인을 하고, 권모와 술수로 자기 자신의 명화와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맞닥뜨린 이 큰 분기점에서 그는 평소에 걸어왔던 대로, 살 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취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처음부터 적대하고 영아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탄생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를 갖고 대항했습니다.

둘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특이한 인물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사실, 즉

유대땅 베들레헴에 한 특이한 인물, 메시아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났습니까?”라고 놀란 것이 아니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유대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도 메시아를 만나러 유대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자연의 특수한 현상을 통한 별의 인도만을 받고 경배할 그리스도를 찾아 왔습니다.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준비하여 아기왕 예수를 만나뵙고 경배하러 나아 왔습니다.

결론

우리의 주변에도 이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같이 예수를 경배키 위해 삶을 준비하며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같이 충분히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겨두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 또는 헤롯 왕처럼 적의를 갖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1. 나의 신앙 생활 속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있습니까?
2. 나의 신앙 생활 속에는 헤롯 왕과 같은 요소(모습)는 있습니까?
3.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화해 보십시오.)?